문제 1

1. **“제시문 (가)는 낭비를 긍정적으로 본다. (가)에 의하면, 인간은 활력 소모라는 낭비를 통해 도락 발현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린다.”** 아쉽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활력소모를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제시했나요? 이는 추측성 답안으로 물론 말은 될 수 있지만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 서술을 노력해주세요.

2. **“제시문 (가)는 원체적으로 사회의 경향 때문에 인간을 자유로운 상태에 냅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본인의 모종의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낭비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3.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은 망각을 통해 선택적으로 기억을 조합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다)에 의하면, 망각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억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원근 단축이 실현되며, 인간은 원근 단축을 통해 과거 회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합하고 망각을 하는 행위는 우리의 기억에 도움된다.”** 제시문 (다)의 원근단축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변칙의 내용이 빠져 제시문 (다)를 요약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에 의하면, 낭비는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낭비를 하여 인간 생활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위된다고 제시하는 (가)와 기억하기 위해서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망각을 하여 효율적으로 기억을 보존한다는 (다)는 다소 대립할 수 있는 논지이다. ”** 전체적인 방향성, 즉 원근단축이 낭비X이란 점은 잘 잡으셨으나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이런 점은 1번지적과 마찬가지로 추측으로 인한 논지 작성입니다.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추측성 논지는 피해주세요.

또한, 변칙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3번지적) 변칙에 대한 대응도 없어 발문에서 요구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네요. 발문 불이행입니다.

5. 하지만 (나) 대응에선 변칙얘기가 나왔네요? 어떻게 (가) 대응에선 변칙내용이 없는데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안을 먼저 알고 계시진 않았나요? 혹은 우연적 발상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대응문제에 접근하실 “ 는 대응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계산하시고 답안작성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문제 2

1. **“또한,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은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에서 공개시간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라는 조건 하에서 피실험자들은 더 큰 변별력에 의해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이해하나 제가 이 문제를 몰랐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에요. 구체적으로 표의 내용들을 수치로 들어주면서 근거를 보충해주세요.

2. **“변별력이 큰 요소인 (라)에서의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와 같은 변수로 변별력이 있게 지원자들을 거른다. 서류심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자들 중에서 변별력 있게 인원을 추릴 수 있고, 다소 한정된 인원들을 서류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변별력을 가지는 기준에서 일정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걸렀기 때문에, 뽑힌 한정된 인원들은 다소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논리적 오류입니다, 빨간 부분에서 희미한 정도 같은 변수로 변별럭 -> 서류심사를 변별력 있게? 왜 하필이면 서류심사인가요? 서류심사가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와 같다는 논리가 빠졌습니다. 이 논리가 충분해지려면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라는 기준과 서류심사가 대응이 되어야 가능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은 모두 발문에 따른 형식을 맞춘 답안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하여 오류가 되버리게 됩니다. 뒤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